

“국가 인공태양 연구시설, 나주로 정책지정해야”

김지사, 학술대회서 강력 유치 의지
에너지공과대·재생에너지 등 강점
“연구 인프라·정주 여건 등 최적지”
“부지 공모 절차 없이 조속 확정을”

전라남도 에너지 대전환 시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기술로 주목받는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를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일 나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에서 열린 ‘2025 한국가속기 및 플라즈마연구협회(KAPRA)·한국물리학회 플라즈마 분과 정기 학술대회’에 참석해 전남의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학술대회는 국내 핵융합 및 플라즈마 분야 핵심 연구자 200여 명이 참여해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핵융합 기술과 플라즈마 응용 분야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정부는 ‘제4차 핵융합 에너지 진흥계획(2022-2026)’과 지난해 수립한 ‘핵융합 에너지 실현 가속화 전략’을 바탕으로, 약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일 나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 열린 ‘한국가속기 및 플라즈마 연구협회·한국물리학회 플라즈마 분과 정기 학술대회’에서 윤병태 나주시장 등과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1조2000억 원 규모의 핵융합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

이에 대형 연구시설 유치를 나선 전남도와 나주시는 빛가람 혁신도시 인근의

안정적 기반과 확장가능한 넓은 부지, 쾌적한 정주 여건, KTX 및 고속도로를 통한 우수한 교통망 등 입지 여건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내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중

심으로 연구·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2020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2023년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과정에서 이미 부지의 적합성, 확장 가능

성, 기반시설 경쟁력 등을 충분히 입증했다.

전남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초전도도체 시험설비 구축 사업(498억 원 규모)’을 유치해 컨택에 시험 인프라를 구축 중이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전라남도 인공태양 포럼’, ‘전남 인공태양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핵융합 관련 전문가 및 산업계와의 협력체계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인공태양은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미래성장을 동시에 실현할 국가 전략기술”이라며 “전남은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전력산업의 중심지 이면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연구 인프라를 갖춰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최적지”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초전도도체 시험설비 유치 등 실질적 기반을 갖춘 만큼, 국가 핵심기술인 인공태양 산업이 나주를 중심으로 성장하도록 부지 공모 절차 없이 정책지정을 통해 전남 유치를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광주 전남대 후문 공실률 38%’

1면서 계속 광주는 17개 광역시·도 중 인구 순유출 추이가 가장 가파르다.

2017년 150만명을 넘었던 인구는 지난 5월 기준 139만9880명으로 줄며, 21년 만에 140만명 선도 무너져 내렸다.

지난 5월 전국에서 순유출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역시 광주였으며, 지난해 빠져나간 인구의 65% 이상이 20~30대 청년층이었다. 결국 인구 유출 속도가 빨라지며 생산연령 인구가 줄고, 이는 곧 수요 위축과 소비 침체로 이어져 상권 유지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신규 주거단지를 따라 소비가 집중되는 ‘풍선 효과’도 작용하고 있다. 실제 최근 상권 수요는 침탄·수환·효천지구 등 신도시형 단지로 쏠리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동산 구매력과 소비 여력이 있는 청

년·중장년층조차 지역을 떠나는 추세에서 기존 상권과 신생 상권 모두 버티기 쉽지 않은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리적 환경 개선이나 테마 조성에 의존하는 ‘상권 활성화’ 정책 방향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단기적 불거리보다는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정주 여건과 일자리, 그리고 세대가 순환하며 소비가 이어질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머지않아 도시 자체가 ‘폐업 정리’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영수 한국부동산연구소장은 “광주는 지금 청년층과 생산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상권의 뿌리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단순한 ‘장사’ 관점이 아니라, 도시의 인구 구조와 정주 여건 전반의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지자체 차원의 ‘빈 상가 활용 프로젝트’나 임대료 지원 같은 처방도 병행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광주시-신세계, ‘광천터미널 복합개발’ 협상 돌입

사업계획·공공기여 등 논의 착수
연내 협상 완료·내년 하반기 착공

광주광역시와 ㈜광주신세계는 광천터미널 복합개발과 관련해 사업계획·공공기여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 착수했다.

광주광역시는 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천터미널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1차 협상조정협의회’를 개최했다. 광주신세계가 지난달 18일 ‘더 그레이트 광주-광주종합버스터미널 개발계획 사전협상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협의회는 광주시 조례에 근거해 도시계획변경에 앞서 진행되는 사전협상 절차다. 사업자 측이 제시한 사업계획과 공공기여 계획에 대한 의견 교환·협의를 진행

한다. 이는 공공과 민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공공성을 담보해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협상에서 협의된 공공기여금은 도로, 공원 등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된다.

회의에서는 협상조정협의회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업시행자인 광주신세계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협상에서 다룰 의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협상대상지 선정때 제시된 조건들에 대해 사업자가 어떤 방식으로 이행할 계획인지에 대한 검토와 차기 회의 의제도 확정했다.

광주시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신세계 측의 사업제안과 공공기여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

류장)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공기여 규모 등을 면밀히 조율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까지 사전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후속 행정절차를 완료한 뒤, 2026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금화 도시공간국장은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은 도시이용인구 증가, 관광객 유입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광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며 “신속·공정·투명한 협상을 통해 시민과 도시 전체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신세계가 제출한 사업제안서는 광주시 누리집 정보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성아 기자

자본감소공고

당 회사는 2025. 7. 2 주주총회의서결결의에 의하여 자본의 총액 금300,000,000원을 금 5,000,000원으로 감소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금10,000원의 주식 30,000주에 대하여 500주의 비유로 무상 소각하여 발행 주식의 총수 30,000주를 5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 하였습니다.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공고 게재 익일부 1개월 이내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함.

2025. 7. 2
호 : 주식회사 지원오앤이
사업자번호 : 571-06-02266
주소 : 전남 목포시 청호로54번길 12, 20호 (대성동)
대표자 : 강수보

한정승인 공고

광주가정법원 심판

사건번호 2025년586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
사망자 이재희 (640213-1*****)
최후주속 광주 광산구 침단중앙로181번길 89-2, 101동 606호 (월계동, 침단대우아파트)
위 망 이재희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상속한정승인하였으므로 민법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5년 7월 3일
공고인 : 이수진
한정승인 수리일 : 2025년 6월 26일
공고기간 : 2025. 7. 3 ~ 2025. 9. 2

나주시 공고 제2025-1117호

나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재열람 공고

나주시 공고 제2022-592호(2022. 4. 25), 제2024-1539호(2024. 11. 20.)로 열람 공고한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139-1번지 일원 ‘노안 물류창고 조성사업’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의견청취 재열람 공고합니다.

2025. 7. 3.
나주시장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재열람 사유
○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나주시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주요내용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변경없음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오정지구	노안면 오정리 139-1번지 일원	65,973	산업유형용

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구분	당초(안)	변경(안)	비고
기반시설	-도로: 2개소(중로2부)	-도로: 1개소(중로2부)	
	-완충녹지: 1개소	-유동용지: 1획지	
가구 및 획지	-유동용지: 1획지	-공공시설용지: 1획지	세부내용 열람자료 참조
	-녹지용지: 2획지	-녹지용지: 5획지	
	-지붕: 지붕분절화 권장	-지붕: 지붕분절화	
	-외벽: 외벽분절화	-외벽: 외벽분절화	
기타사항	-	-	
	-	-	
	-	-	
	-	-	
	-	-	
	-	-	
	-	-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도서: 열람장소에 비치
- 열람장소: 나주시 도시과 및 노안면 행정복지센터 사무실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2025. 7. 3. ~ 7. 17.
- 의견제출 방법: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
- 열람장소(현장) 직접 또는 전자우편(yjw6821@korea.kr) 제출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도시과 도시계획팀(☎061-339-09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돈

받아드립니다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안채권, 삼가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못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

주재기자 모집

당사는 지역언론을 선도할 진취적이고 창의적 이상을 갖춘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집지역 및 인원

지역	구례
인원	1명

제출서류

- 이력서(연락처 명기)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자기소개서 1부

접수마감 및 접수처

- 접수마감 : 채용시 마감
- 접수처 : 우편 접수 -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전남일보사 경영본부
- 이메일 접수 - recruit@jnilbo.com
- 기타 사항은 ☎(062)510-0421로 문의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全南日報